

문 2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

답 24: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 하시려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 내시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요한복음 1:1,4,18, 14:26, 15:15, 16:13, 20:31; 히브리서 1:1-2; 베드로전서 1:10-12; 베드로후서 1:21; 고린도전서 2:13; 디모데후서 3:15

질문 1: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2: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질문 3: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 내시는 것인가?

질문 4: 예수님과 말씀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질문 5: 말씀과 성경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질문 6: 말씀과 성령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질문 7: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가?

설명:

그리스도(메시아)께서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신 선자자이며 모든 선지자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직분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신명기 18:15-20,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골로새서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오신 자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17)

하나님께서 이미 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는 물론이며 그는 자신의 권위로 또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선지자중에 선지자인 것이다.

모든 선자자들이 그래듯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선지자는 자신들의 뜻이나 생각을 말할 수 없다. 반드시 그를 보낸자의 뜻을 선포하는 것 만이 선지자의 직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 즉 구원에 있다. 구원이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완벽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닥아온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고 이 땅에서 그의 존재를 통해 그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했다. (마태복음 7: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22)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있다. 특별히 그의 “산상보훈” (마 5-8)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음을 증거했다. 또한 그는 말씀으로 수많은 병든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자를 살리시며, 자연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실때에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방불케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서 세우는 것이었다.

말씀과 성경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계시라고 칭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정직한 선포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은 여러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절정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특별계시이다.

마지막 선지자, 완성하시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후에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없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완성을 통해 또 다른 특별계시는 더 이상 없다. 이미 성경에 대해 공부한바 있지만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일반계시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특별계시는 성경의 완성을 통해 마무리 되었다.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특별계시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수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종교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된다. 케토릭은 교황이 사도의 계열로써 아직도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성경을 새롭게 풀이하면서 그 본질을 변경시켜도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과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지 못했음을표현하는 것이므로 아주 비성경적이며 잘못 된 것이다.

로마 교황 뿐 아니라 몰몬교, 안식교, 크리스찬 싸이언스, 여호와의 증인들의 중요한 공통점들 중에 하나는 바로 특별계시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완성된 특별계시인 성경에 무엇인가를 추가로 첨부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나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런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에 대해 부족함을 주장하는 것임으로 인정할수도, 인정해서도 안된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말씀과 성령을 분리할 수 없다. 말씀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말씀으로 임하시며 말씀은 성령으로 임한다.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27) 말씀이 임할때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침을 주신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20-21)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성경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구별할 수 없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는 완벽하며 완성하시는 선지자로 오셨는데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역아래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되신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 할 수 없다.